

## 자매들을 위한 공과

### 3 과

####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남성과 여성에 관한 성경의 계시

성경 : 창 1:27, 마 19:4b, 고전 11:3-15, 갈 3:26-28, 4:6, 고후 11:2

- I.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오”—창 1:27, 마 19:4b.
- A.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다.
1.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차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다르다—창 2:7, 21-22
    - a. 남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자는 하나님이 건축하셨다. 하나님의 건축의 일은 그분의 창조의 일보다 더 섬세하다—창 2:21-22
    - b.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는 하나님이 건축하신 여성보다 더 거칠다.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성을 건축하셨기 때문이다.
    - c.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을 많이 한다 해도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지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없다. 아무리 유행이 바뀌어도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없다—비교 신 22:5.
  2.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은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본성과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뒤엎을 수 없다.
    - a.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로맨스는 하나님의 신성한 로맨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사용된다—사 54:5, 렘 2:2, 겔 16:8, 엡 5:25-32, 계 19:7-8, 21:2
      - 1)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는 대상이다—엡 5:25, 비교 신 24:5.
      - 2) 하나님의 사랑에도 대상이 필요한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엡 5:2, 25.
    - b.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무리를 안배하셔서 어떻게 그분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어떻게 인간들이 순종해야 하는지를 묘사하신다—엡 5:22-24
      - 1) 하나님은 남자가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기를 원하시고 여자는 순종하는 인간들의 역할을 맡기를 원하신다—고전 4:9, 11:10.
      - 2)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이 문제에 갖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 3) 주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전혀 차이가 없이 구속받은 피조물들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의 역할과 순종하는 사람의 역할을 묘사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롬 3:21-24, 고전 11:3-15, 딤후 2:11-14.

4) 이것은 배우가 무대 밖에서는 보통 사람이지만 무대 위에서는 여러가지 역할의 매우 특별한 인물로 연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배우가 무대 위에 있을 때는 기능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지만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은 없다.

5) 자매들의 순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

B.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다—고전 11:3-15, 14:33b-38, 딤후전 2:11-14

1. 한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지만 (갈 3:28), 다른 한 편에서 비록 우리가 새 사람이지만 교회생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딤후전 2:11-14)

2. 우리는 영이 있지만 육체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와 교회생활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구분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롬 13:14

a. 자매들은 사람들을 접촉할 때 자신들이 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매들은 부주의하게 말할 자유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b. 방 안에서 혼자 이성의 사람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는 세번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만 미덕일 뿐 아니라 커다란 보호이기도 하다.

3.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없다.

II.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6-28:

A.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갈 3: 28

1. 세상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 교회의 행정 안에서도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가 다르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다—딤후전 2:12, 엡 5:22-25, 골 3:18-19.

2.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와 새 사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그들 사이에 구분이 없다—갈 3:28.

3.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에게 특별할 위치가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

a. 어떤 봉사의 분야에서는 자매들의 위치가 형제들의 위치와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권위의 문제에 관한 것만 그렇다—딤후전 2:12.

b.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이가 전혀 없다.

B. 생명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들은 남자이지만, 사랑에 따르면 우리 모두 여자이다.

1. 생명에 따르면 자매들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갈 3:26, 4:6-7, 요 20:17, 롬 8:29, 히 2:11-12, 계 21:7.

- a. 자매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들들만 있고 딸들은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갈 3:26
  - b. 육체 안에서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면 자매들이라도 아들들이다—요일 5:12
2. 다른 한 편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여자들이고 형제들도 여자들이다.
- a.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양의 아내이다—고후 11:2, 요 3:29a, 계 21:2, 9, 비교 아가 1:3b, 4:8-9.
  - b.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사랑의 문제이지, 생명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 여자들이다.
  - c.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들인 반면에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에게는 사랑스런 신부이다.
- C. 교회가 남자이면서 (엡 2:15, 4:24, 골 3:10) 동시에 신부라는 것(엡 5:23-27)은 얼마나 놀라운가!

## 사역의 말씀 발췌문

### 창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런 다음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뿐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남자를 위하여 나왔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여자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다. 비록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것일 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여자‘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다르다. 하나님의 창조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있지만, 남자는 여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고전 11:10)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동은 동이고 철은 철인 것과 똑같이,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한다 해도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없고, 유행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본성과 기능 또한 다르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성경의 중점 진리, 2권, 19장, 75-76쪽)

### 형제와 자매 사이를 분별하는 선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경계선이 있다. 그것은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다. 이것은 매우 엄청난 경계선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 때, 이성(異性)과 접촉할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교회 안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집회할 때나 봉사할 때나 복음을 전파할 때나 간증할 때,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접촉이 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 때 반드시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이것은 분리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절대로 없앨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이 경계선을 없앨 때, 당신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기독교에서 영적인 체험은 거의 없지만 열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므로 자매들로부터 형제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그러한 사상의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다. 어떤 지방의 장로들은 그들이 심은 열매를 거두어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은 형제자매들이 어떤 경계를 갖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남녀 사이의 경계선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이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이들은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남녀 사이의 경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결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어떤 사람은 거의 나를 유죄 판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사상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생각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서서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는 마땅히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각지에 있는 장로들은 모두 반드시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확고한 경계선을 세워야 하며 이 경계선을 절대로 없애 버려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반드시 남녀 사이의 경계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사이에 구별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남녀 사이에 구별이 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남녀가 나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울은 형제가 머리를 덮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자매에게는 머리를 덮개로 가리고 기도하라고 했으며 또 자매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보라, 교회 가운데에는 여전히 남녀의 구별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나에게 아주 정중하게 물었다. “리 형제님, 왜 오늘날 교회는 시대의 표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적인 모임에서는 남녀가 함께 앉습니다. 왜 교회의 집회에서는 남녀가 따로따로 앉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다윗이 당신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했고 더욱 영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다윗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겠는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으므로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남녀 사이의 경계선을 결코 없애지 않으셨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 때,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나 자매들 사이에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차이가 없다는 이 말은 해로운 말이며,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경계선을 긋는 것을 배워야 한다.(장로치회, 9장, 156-158쪽)

### 남녀 사이의 경계선을 주의함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관계는 남녀 관계이다.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훨씬 능가한다.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지으시고, 그다음 자녀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은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다음 여자를 지으셨고 오직 그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낳게 하셨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시작되었지만, 첫 번째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였다. 이것은 또한 매우 개인적인 관계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지만, 남녀 관계는 선택을 포함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 분명해야 하고 남녀 사이의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거둬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타락했고 여전히 육체이다. 로마서 7장은 우리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한다(17-18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분이신 주 예수님을 말한다. 육체는 죄에 속했지만, 하나님

의 아들은 육체가 되셨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알맞은 해답은 로마서 8장에 있다. 3절은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육체가 되셨지만 그분께서는 죄의 육체의 모양만 있으셨을 뿐, 육체의 죄는 없으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들어 올린 놋 뱀으로 예표되었다(민 21:9, 요 3:14). 놋 뱀은 뱀의 형상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독은 없었다. 이 놋 뱀은 뱀의 독이 주입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독을 주입한 뱀을 처리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온 죄를 유죄 판결하셨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죄의 육체가 없으셨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람이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이 있으며(욘 32:8) 사람은 육체라고(창 6:3) 말한다. 사람이 육체인 이상 남녀의 분별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이 분별을 없애 버릴 수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자와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읽어 본다면 그중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지만, 다른 면에서 비록 우리가 새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생활 안에는 여전히 남녀의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지만 육체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남녀 간의 경계를 지켜야 하며 교회생활 안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 수줍음이 있을수록 더 많은 보호를 받음

우리가 집회에서 교통하고 증언할 때, 형제든 자매든 모두 일어나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매들은 항상 자신이 여성임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염치, 곧 수줍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염치, 곧 수줍음은 여성의 미덕이다(딤후 2:9). 성경에는 여자가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신언하는 것이 모두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고전 11:5). 그러나 이것이 형제들은 염치없이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남녀 모두 수줍음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수줍음을 가질수록 당신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더 많이 보호받게 된다.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수줍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가는 장소에 있어서,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 원칙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을 따를 때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요일 2:27).

특히 전시간으로 봉사할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공과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접촉할 때 부주의해서는 안 되고 접촉하는 장소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자매들은 사람을 접촉할 때 자신이 여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조심성 없이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이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와 교회에서 반드시 남녀의 분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방 안에서 이성과 단 둘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반드시 제삼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미덕이고 또한 가장 큰 보호이다.(주님을 섬기는 이의 이상·생활·일, 16장, 229-232쪽)

#### 남녀의 차별을 없이함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네 번째 구별은 성별, 곧 남녀 간의 차별이다. 세상에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도 여자의 역할이 있다. 교회의 행정에 있어서도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도 여자의 역할이

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 또한 아내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와 새사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고 동일한 입지를 갖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없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눌 수 없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자매들의 위치가 형제들과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오직 권위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차이가 없다. 형제가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자매도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형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국어 성경에서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번역한 모든 부분들의 원어는 자녀들인데, 이 단어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그 단어를 남성 명사로 사용하기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장래에 자라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남성이다. 형제들뿐 아니라 자매들도 이리하다.

신약 전체에서 오직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만 아들들과 딸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였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와 세상 사람과 분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 이것은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언급한 것이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과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곤경을 겪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 만일 여러분이 남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받으시고 만일 여러분이 여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딸로 받으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의 문제일 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상하이에서 기술자였던 한 형제님에게 물었다. “형제님, 당신이 있는 곳의 형제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내게 “남자 형제를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 형제를 물어본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나는 이 한마디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느낀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참된 말 가운데 하나이다. 남자 형제도 형제요 여자 형제도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 그의 말은 참으로 옳다. 그는 간단하게 성경의 진리를 말해 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을 접촉할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초월한다. 우리는 성별 바깥에 있다. 주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워치만 니 전집, 48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상), 8장, 167-169쪽)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관념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사도들은 모든 믿는 이들의 본들이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도 이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도 아니다. 사도들은 유일하다는 관념은 로마 천주교의 전통이다. 이 전통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승자이므로 최초의 교황이라는 사상에 관련된 것이다. 얼마나 마귀적인 관념인가! 베드로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한 예(例)이다.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의 예이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믿는 이들을 위한 본이다. 디모테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우리 중의 누구도 자신이 그와 같이 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오늘날의 사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자매들은 이것이 자매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는 것을 믿기가 정말 어렵다고 여길지 모른다.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는

딸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는 딸들이 없으시고, 오직 아들들만 있으시다.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들만 있을 뿐, 자매들은 없다. 이것은 생명에 따르면,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임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형제들에게 편지한 것이지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자매들은 형제들이라는 말에 포함 된 것이다.

생명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남자들이다. 그러나 사랑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여자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생명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결혼 생활의 유일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아들들인 반면에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스러운 신부이다.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우리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합당하게 답변하는 길은, 우리는 생명에 따르면 남자이고, 사랑에 따르면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사랑에 따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는 생명에 의해 모든 믿는 이들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본이 되었다. 이것은 바울을 우리의 본으로 취함으로써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이들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바울의 위치가 사도였다면 우리의 위치도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 직분이 형성된 것을 연구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사도 직분이 형성된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어린 자매도 주 예수님을 그녀의 부모에게 간증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아 그녀의 부모에게 갈 수 있다. 당신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모두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도 직분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5장, 50-52쪽)

## 연구 질문

1.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의 본성과 기능이 다름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정 방식은 무엇인가?
2.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3.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구분이 폐하여 졌다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 참고 도서와 추가로 읽을 말씀:

1. *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 2 권, 메시지 7*
2. *과정을 거치시고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함, 메시지 3*
3. *성경의 중점 진리, 2 권, 메시지 19*
4. *장로교회, 메시지 9*
5. *주님을 섬기는 이들의 이상과 생활과 일, 메시지 16*
6. *새 신자 양육을 위한 메시지들, 1 권 메시지 8*
7.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5와 21*
8. *하나님의 중심 사상, 메시지 13*
9. *워치만 니 전집, 42 권, “특별집회 메시지와 교통(2)”, 메시지 46*